

인도의 민자발전과 투자조건

1. 외국인 투자의 증가

1995년은 「인도의 해」임이 틀림없다. 인도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가 1992년에는 얼마 안되는 2억1200만달러였으나 1994년에는 거의 10억달러에 육박하였다. 금년은 인도의 산업현대화에 대한 필사적인 노력과 전력부문에서 정부가 부담을 덜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정책 등으로 1/4분기중 총 5억5000만달러가 승인되었다.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인도의 가장 중요한 경쟁국가인 중국은 확립되지 못한 취약한 정책과 계약준중에 대한 양립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외국투자자들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제 인도도 이와 비슷한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전적으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인도의 민간회사와 외국측과의 사이에 특히 자동차 비즈니스에 있어서 조인트 벤처가 계속해서 탄생하였다. 그런데 산업계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노력이 공공부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정치에 의한 영향으로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이다. 의회의 지배를 받는 정부는 자율화·개방화가 어떻게 인도의 빈곤 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외국인에 의한 개발에 대하여 인도의 고집스러운 편집병을 자극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2. 조인트 벤처와 전력사정

외국회사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도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독점기관인 인도 보험산업의 개방을 위하여 1996년에 있게 되는 총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미국의 켈로그(Kellogg)를 포함한 몇몇 소비재 회사들은 그들의 인도 조인트 벤처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거부당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 어라이인과 타타(Tata) 그룹과의 조인트 벤처는 항공성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도의 자율화계획의 가장 흑독한 시험은 전력산업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비재의 경우 많은 인도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갖지 못하였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력부문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인 것이다. 최근에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The Economist의 자매회사)의 주관으로 델리(Delhi) 호텔에서 가진 콘퍼런스에서 몬텍 알후와리아(Montek Alhuwalia) 재무장관은 정전으로 연설을 중도에서 끝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정전은 2일동안에 최소한 10회는 발생하는 실정에 있다. 첨두수요시에 현재의 전기공급 설비는 평균적으로 총 소요량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이며, 다음해인 1996년에는 그 부족량이 30%

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5개년 계획의 수정

이 세상에는 많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가 그 부분적인 이유로서 몇몇 주에서는 그 결과로 농부들이 전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너무나 적은 돈과 너무나 많은 관료주의가 뒤엉킴으로써 현행 5개년 계획에서 현재의 발전설비 7700만kW에 신설 발전소 4800만kW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회에 걸친 수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신설 발전소의 용량을 2000만kW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인도정부는 1997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5개년 계획에서 현재 전체 발전설비의 4%를 점하고 있는 민간부분이 5700만kW의 발전설비를 추가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외부기업을 유혹하기 위하여 100% 외국인 소유와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열 개의 「급행」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주 전력청(State Electricity Distribution Boards)으로부터의 악성 부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대한 조건에 대한 현지 주민의 분노로 인도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을 지난 2월에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민간발전 신청이 거의 200건에 가까웠으며, 신청된 발전설비 용량은 합계 8000만kW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중의 50%만이 실현될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 외국인 투자의 선두주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급행 프로젝트는 합계 600만kW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스웨덴의 복합기업인 에이비비 아세아 브라운 보바리(ABB Asea Brown Boveri)와 영국의 내셔널 파워

(National Power) 등과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열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단 하나만이 현재 일어서서 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이 프로젝트는 미국 휴스턴(Houston)의 에너지 기업체인 엔론(Enron)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는 다른 미국의 두 개의 거대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벡텔(Bechtel)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도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의 봄베이(Bombay)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다브홀(Dabhol)에 가스 연소 200만kW의 발전소를 28억달러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이다.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9억2000만달러가 투입되는 1단계 69만5000kW의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이미 착공이 되어 시공중에 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마하라슈트라의 주선거에서는 1993년에 설립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협정계약이 이슈로 등장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족주의 정당인 시브 세나(Shiv Sena) 및 바라티야 자나타(Bharatiya Janata) 당들은 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엔론의 간부들이 처음으로 인도의 지방관료들 앞에 출두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5. 프로젝트의 재검토

가장 핵심적인 불만은 재정 문제임이 드러났다. 엔론의 프로젝트는 1,000kW당 4200만루피(rupees)(미화 130만달러)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도의 공공부문 발전소는 개략적으로 이 가격의 반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엔론은 주 전력청으로부터 1997년에 kWh당 2.40루피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비해서 시설 발전소들은 1.74루피를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엔론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은 수치는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비평은 현재 또는 옛것을 1997년의 것과 비교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의 효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투

자비의 경우 엔론의 4200만루피의 금액은 자금 비용과 발전소를 위한 항구의 건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투자비가 현지 공공부문의 예산액에 50%를 추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4월에는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만일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인도에 대한 외국투자는 대혼란으로 내동댕이 치게 될 것이다.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으며 엔론은 제 1 단계 사업에서의 연료유류 공급계획에 대한 것과 같은 비교적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재협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현재 협상단계인 이 프로젝트의 제 2 단계는 1단계에 비해서 크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6. 문제점

확고한 가격 정책없이 정부가 민간 전력시장으로 서둘러서 진입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또한 인도 정부는 규제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갔으며, 이와 같은 의욕과 현실과의 간격을 각기 주에서 메꾸어 나가야 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은 인도와 같은 극도로 활발한 그리고 예민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위협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엔론과 ABB와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돈을 만들 수 있다고 감지만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릴 것이다.

(자료 : The Economist · May 27th 1995)

타이의 민자발전 계획

1.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뽀개 달아있는 슬래브(Slab)를 밀리미터 밖에 되지 않는 두께로 압착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타이의 사하비리야 제철회사(Sahaviriya Steel Industries)가 1994년에 조업을 개시하였을 때 제철회사의 기사들은 그들이 압연설비를 가동시킬 때마다 매년 충분한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연락을 취하여야만 했다.

타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많은 다른 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급속한 산업화는 국영회사인 타이 발전공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 EGAT)로 하여금 여기에 공급할 전력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화의 속도에 밀려서 뒤로 처지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전력의 수요는 향후 15년간 2배 이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이 발전공사는 민간 부문이 도와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2. 민자발전의 초대

타이 발전공사는 서기 2002년까지 40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건설·소유·운전하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독립 전력생산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 IPP)로서 전력사업에 참여할 것을 초청한 바 있다. 1995년 6월 30일에 실시된 입찰에서 30개 그룹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당초 기대하였던 것의 두 배가 넘는 참가신청이었다.

거의 모든 입찰자들은 타이 회사들과 미국의 텍사코(Texaco)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같은 저명한 국제적인 에너지 관련회사와 짝을 짓고 있는 파트너십이었다.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자신

의 손에 쥐고 싶은 노력은 사하리비아 제철로 하여금 이탈리아의 안살도 에너지(Ansaldo Energie)와 공동으로 제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제의서에 의하면 방콕 남쪽의 프라추프 키리 칸(Prachuab Khiri Khan) 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제철소 근처에 유류 연소의 140만kW의 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3. 안정된 수입원으로서의 독립발전 사업

다른 타이의 회사들도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한가닥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거대집단인 록슬레이(Loxley)는 네 건의 제의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록슬레이의 수석 부사장인 바산트 차티카바니즈(Vasant Chatikavanij)씨는 회사에서는 발전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안정된 수입원을 가지고 싶어한다고 말한다. 시공회사인 이탈리아-타이 개발(Italian-Thai Development)과 같은 다른 입찰자들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전력사업 수입이 기복이 심한 그들의 핵심사업 수입을 상쇄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에서의 독립 발전사업자 선정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빈산트 수석부사장은 “당신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정말로 겁을 집어먹게 될 것이다. 모든 입찰자들이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타이 발전공사는 1995년 12월까지 최종선발 후보자 명단(Short-List) 작성을 완료하고 1996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4.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타이 발전공사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가격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빈산트 수석부사장은 입찰자들의 가격은 서로 너무 접근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이 발전공사는 건설위치, 연료원 및 환경보전 등에 대한 저울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가스 연소 발전소들은 서기 2000년까지 건설하게 되는 초기단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천연가스의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기간이 더 긴 석탄 및 유류연소 발전소가 보다 더 우위의 선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연료의 선택

현재까지는 연료의 공급문제가 독립 발전사업자 프로그램의 주요한 자리매김의 잣대가 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배분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타이 석유공사(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는 독립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가스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로서의 가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타이와 미얀마의 추가적인 공급원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입찰자들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말타반(Martaban)만으로부터 미얀마를 경유해서 타이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의 안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다른 해결방안으로 더 가격이 높은 액화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 LNG)는 중동이나 기타지역으로부터 수입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이는 현재 LNG의 하역설비를 갖춘 항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석유공사는 인수항을 한 곳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가스공급의 불확실성

연료 가격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근간이 된다. 그래서 모든 예비 독립 발전사업자들은 가격과 공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공급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가스 연료발전소 건설을 제외하고 있는 입찰자들은 다만 석유공사와의 사이에 그들이 가스를 공급할 것이라는 불분명한 메모런덤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다.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3, 1995)

말레이시아의 전기요금

1. 전기요금 인상의 보류

그것은 1페니도 안되는 문제였다. 말레이시아의 전력회사인 테나가 내셔널사(Tenaga Nasional Berhad : TNB)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회장인 탄 스리 아니 아로프(Tan Sri Ani Arope) 씨에게는 하찮고 사소한 일로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 1995년 5월 5일의 kWh당 0.8센트 인상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그는 농담조로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비열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니 회장은 곧 난처해졌다. 여당인 국민전선(National Front)이 1995년 4월 25일의 총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날에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항의하기에 이르렀고, 정부와 집권당의 인기상승을 그렇게 빨리 망쳐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한 내각은 전기요금의 인상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2. 전기요금의 재검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다두크 세리 마하틸 모하마드(Datuk Seri Mahathir Mohamad) 수상은 “우리는 적절한 연구를 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인상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마하틸 수상은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가해서 말하고 있다.

제시되었던 전기요금 인상안에 의하면 TNB는 금년 1995년에 추가로 M\$2억(8000만 미국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것이었다. 요금인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후 분노한 투자자들은 전력회사의 주식을 투매하게 되었다. 전력회사의 주식은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 다음날에는 M\$10.90에서

M\$9.75로 하락하였다.

3. 정책 방향전환의 예고

본질적으로 정부는 자승자박을 한 셈이다. TNB 최대의 주식소유자인 칼라룸푸르 정부는 주식 가액의 71%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력회사의 주식 가액이 최고값을 시현하였던 1994년 초의 M\$20 이후 가격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리가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정책변경의 충격으로 정부의 증권 가액 손실은 M\$25억에 이른다.

재난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력회사와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전기요금의 재검토는 말레이시아가 저돌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해 재고려하는 많은 분야중 겨우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독립 전력생산자

1992년의 전국적인 대정전사고에 자극받아 전력 생산설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정부의 정책은 TNB의 발전설비 독점을 해체시키고 여섯개의 민간 발전사업자를 탄생시키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결과 이제 국내 발전량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요금 재검토로 정밀진단을 받고 있는 것은 TNB 뿐만이 아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너지 부문의 재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독립 전력생산자(Independent Power Producer : IPP)들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의 프로젝트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정부의 실책과 쌍방의 양보

정부의 한 계획입안자는 “나의 새로운 평가는 정부가 ‘보시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소, 그러나 모

두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이것은 해결될 것이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잘 되기 위하여 단기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력 회사와 가까운 소식통에 의하면 전기요금의 재검토는 저돌적으로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정책의 검토대상 분야중에 겨우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6. 전력구매 합의서의 재검토

"몇몇 독립 전력생산자들은 이미 TNB와 계약을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한 소식통은 말한다. "그러나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TNB와 민간 발전사업자간의 전력구매 합의서는 주기적인 재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최근의 결정은 암묵적으로 정부측의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7. 선거와 전기요금

외관상의 정책 역전은 투자자들 특히 외국 자금 매니저들을 신경과민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면 TNB의 요금 인상안 제시는 정상적인 업무절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매 3개월마다 전력회사는 연료비와 같은 요소가 포함된 방정식에 의해서 요금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해에 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면 전력회사는 그들의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1월에 연료 가격이 상승하면 요금 인상을 제의한다. 그러나 에너지성(Energy Ministry)의 공무원은 정부의 임박한 선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의를 거절한 것이다. 사미 벨루(Samy Vellu) 에너지성 장관은 투표 후에 인상될 것이라고 공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는 생

각이 들게 만들었다.

8. 재검토 작업의 범위

인기 정책자들의 공개적인 반대를 기대한 사람들은 얼마 안되었다. 또한 정부는 정반대로의 정책 전환에 대한 비판을 견디어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투자자협회(Malaysian Investors Association)의 피에치 에스 림(P.H.S. Lim) 회장은 "정부는 그 자신의 신용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TNB의 주주들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 착수한 재검토 작업은 그 범위도 불분명하지만 불확실성을 혼합시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와이 티 엘(YTL), 젠팅(Genting) 그리고 말라코프(Malakoff)와 같은 회사들은 1992년에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 배려로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그동안 이들 회사의 주시가격은 전력생산으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전망으로 뛰어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전기요금을 새로 협상한다면 투자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한 흥미를 다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현재 건설중에 있는 다섯 개소의 독립 전력생산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가 M\$9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여섯번째 사업허가는 바로 얼마전에 주어졌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은 수지가 맞는 유리한 전력 매매 합의서를 요구했으며, 그 목적을 성취하였던 것이다.

9. 독립 전력생산에의 요금 지불

자금이 풍요한 사업자는 독립 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시켰다. 예를 들어 YTL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앞서서 1994년 10월에 전력을 TNB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전력회사측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YTL와의 전력매매 합의서 조항에 의해서 어찌되었든 전력을 구입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YTL는 이미 822MW의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결시켜 놓고 있다. TNB가 매일 YTL에 지불하여야 할 전력요금은 M\$ 120만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10. 잉여 발전설비와 TNB의 경영 전망

1992년의 대 정전사고 이후 TNB는 자체 발전설비를 대폭 증강시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말레이시아 반도의 첨두 수요는 5,935MW인데 비하여 TNB의 발전능력은 6,489MW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TNB는 1994년 8월 31일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M\$ 19억의 납세전 이익을 올렸다. 분석가들은 TNB가 이와 같은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추정에 의하면 TNB는 1995년에는 독립 전력생산자에게 최소한도 M\$ 10억을 지출하여야 하며, 내년에는 지출액이 급년의 두 배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의 인상이 실현되지 못하면 다음 2년간에 걸쳐서 이익금이 5~25%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 전력 예비율 : 30%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말레이시아의 전력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전력수요는 연간 14%씩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30%의 예비율은 장래에 대한 배려를 한 신중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6년까지 준공되는 독립발전소들은 말레이시아에 너무 큰 예비율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쿠션은 언젠가는 보다 신중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TNB의 비평가들은 전력회사는 그 자체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회사는 아직 배전과 송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옥은 변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팔라렘푸르에서도 아직 정전사고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5.25)

POWER-GEN

'95 박람회 및 컨퍼런스 참가 안내

- ♣ 명 칭 : POWER-GEN ASIA '95
- ♣ 공동전시 : DA/DSA ASIA '95
- ♣ 주 관 : Penn Well Conferences
- ♣ 주 최 : Times Conferences
- ♣ 개최기간 : 1995년 9월 27일~9월 29일
- ♣ 개최장소 : 싱가포르 국제 컨벤션 센터
Singapor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본 행사에 대한 참가를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저희 BL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BLI(Business Links International)
Telephone-563 8223
Fax-564 9288